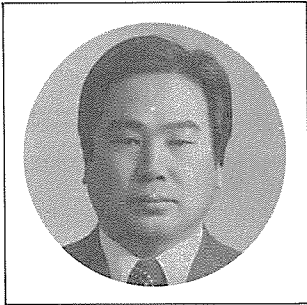


꿈나무 과학도를 기릅시다



金昌植
국민대 사범대교수

소련이 공산주의를 포기한 이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경제성장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 미래사회는 어떤 모습을 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온 국력을 여기에 기울이고 있다.

미래과학자 다니엘 벨은 2000년대를 과학기술사회, 정보화사회가 된다고 예언하고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엘빈 토플러 역시 2000년대에는 그 나라에 자원이 많거나, 인구가 많거나, 국토가 넓다하여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과학교육을 개혁하여 새로운 최첨단산품을 개발할 수 있는 우수하고 창조적인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와같이 많은 학자들이 미래를 위한 혁명적인 교육개혁을 주장함에 따라 미국은 미국2000이라는 교육개혁전략을 발표하여 영어, 수학, 과학, 역사, 지리 등 5개 교과를 초·중등학교의 중핵

교과로 하고 과학과 수학의 학력을 세계 제1위가 되도록 하며, 학교가 책임있는 교육을 하는 새로운 미국학교를 선거구마다 하나씩 시범적으로 세워 일대 교육혁신을 단행하려는 혁명적인 전략을 마련, '92년부터 강력히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1000개를 돌파한 기업체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비를 대폭 투자하여 첨단과학기술 산업과 재래기술산업의 조화를 도모하고, 초·중등학교의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꿈나무 과학도를 기릅시다.

이것은 이 전략의 일환으로 교육부 산하의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와 과학기술처 산하의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이 KBS와 중앙일보의 후원을 얻어 4개단체 공동주최로 과학실험기자재 보내기 회원모집 운동을 거국적

으로 전제하면서 내건 슬로건이다.

수재민을 돕거나,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것과 같은 불우한 이웃을 돕기위한 성금을 범국민적으로 모금하는 경우는 1년에도 몇번씩이나 있었고, 금강산담 공사비, 독립기념관 건립기금 등 국가적 대의명분이 분명한 일에 성금을 모금한 경우도 더러는 있었다. 그러나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교육비인 초·중등학교의 과학실험기자재를 갖추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범국민적으로 성금을 모으기는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이 운동의 발단은 대통령의 과학담당 기자회견 내용을 들은 과기처장관의 아이디어였으나,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6월26일 꿈나무 과학도 육성을 위한 전국과학교육자대회였다. 이 대회에서는 과학교육의 목표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21세기를 대비하여 과학교육을 진흥하지 않으면 과학기술 선진 7위권에 진입한다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민주주의식을 함양하는 일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기초과학교육을 공중전화의 낙전이나 국민들의 성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이 어디에 있느냐고 노발대발하는 국민들도 많지만 과학교육에 종사하는 학자들이나 교사들은 이 운동의 목표를 대략 다음과 같은 세가지에 두고 있다.

그 첫번째의 목표는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시행을 눈앞에 두고 그동안 경제개발정책의 그늘에 묻혀 과학교육의 여건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하게된 현실을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알려 더 이상 과학교육을 방치하면 경제침체보다 더 어려운 국가적 위기가 온다는 것을 이해시켜 '92년 예산에는 획기적인 투자가 되도록 유도하자는데 있고, 그 두번째의 목표는 곧 실시되는 교육의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아 교육의 책임을 국가에게만 지울것

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에게도 의무가 있음을 자각하고 국가가 못다하는 역할을 국민이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는데 있으며, 그 세번째의 목표는 산간벽지와 대도시간의 과학교육 여건이 현저한 차이가 있어 이번에 모금된 성금으로 오지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다소나마 이 격차를 줄여보자는데 있다.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학차가 산간벽지에 도착하면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어 마치 곡마단이 온 것처럼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하는 모습을 TV를 통하여 본 사람이 있다면 이 세번째의 목표는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회원모집은 구좌제로서 개인회원은 1만원 이상, 단체회원은 10만원 이상, 특별회원은 100만원 이상으로 하여 현금은 물론 현물을 기부할 수도 있고 특별히 학교를 지정하여 지원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게 하여 12월말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기처, 교육부, 문화부의 3부 장관과 예총회장 등이 참석한 11월5일에 있었던 「과학 + 예술」이란 행사는 과학기술자와 예술인들이 함께 그들 스스로가 만든 문예작품 전람회를 열어 여기에서 생긴 이익금을 실험기구 보내기운동에 기부한다는 행사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과학기술인과 예술인이 만난 호뜻한 행사였다.

어떻든 2000년대에 한국이 보릿고개 없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온 국민이 성금을 모아 주었던 단합된 정성으로 자라나는 꿈나무 과학도이자 2000년대의 주역이 될 초·중등 학생들이 과학교육에 관심과 열의를 갖고 시설의 확충, 실험기구의 확보, 우수교사의 양성, 훌륭한 교육과정 등 모든 진흥정책에 국가와 국민이 함께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